인간적 자질 대신 하나님 은사로만 살기

(딤후1:1~18)

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인간적 자질 대신 하나님 은사로만 살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인간적 자질로 우리의 삶을 살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사로만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자질이 뭡니까?
자질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후천적으로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습득한 능력이나 실력 또한 자질이라고 합니다.
즉,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인간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 기질을 통틀어서 자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단어가 오늘 인간적인 자질과 대비되는 단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자질과 하나님의 은사가 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본 것처럼 지혜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통틀어 공통적인 특성을 얘기하자면, 나의 선천적인 소질도 후천적으로 습득된 실력도 아닙니다.
내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은사에요.
그러니까 자질은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은사는 나 밖으

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다른 특징이 한번 주어지고 나면 항구적으로 나의 소질처럼 내게 붙박이로 있게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나타날 때마다 지금 여기서 하늘과 연결이 된 상태에서 흘러들어오게 되는 능력인 것이지 내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은사를 흉내 내거나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 방언을 한다, 하늘과 연결돼있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늘과 연결돼있는 능력으로서의 방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사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그때 하늘과 연결된 상태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듯이 흘러들어오는 게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언제나 구체적인 지금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사가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병든 사람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병 고침의 은사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병든 사람을 만나는 상황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은사가 은사로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능력은 그냥 공허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현장이 함께 주어집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난 은사도 마찬가지에요.
구체적인 상황과 은사가 함께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하루를 살아도 정말 다양한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지 않거나 잘못 믿는 사람들은 내게 맞닥뜨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인간적인 자질을 동원해서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게 되는 경우에는 은사로 대처하게 됩니다.
한 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삶의 상황을 은사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항상 연결돼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상 하늘과 연결돼 있으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 인간적인 자질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소질이나 후천적으로 습득된 실력 능력 교양 상식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 대처합니다.
이게 바로 은사에요.
내가 아닌 나 밖에 있는 하늘로부터 연결됨으로써 내게 주어지고 있는 능력, 그러나 능력이 공허하게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주어지는 능력, 이게 바로 은사에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한 경직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리고 어거스틴, 사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에 대해서 잘 습득된 실력을 발휘한, 즉 인간적인 훌륭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사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은사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은사로.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은사로 대처하라, 이게 본문의 요지입니다.
1장을 우리가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 이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은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위임할 때 안수를 했습니다.
아마 사도바울과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이 함께 안수를 했겠지요?
그 장로님들 중에는 지금의 목사님들이 포함돼있었을 것이고, 지금의 장로님들도 포함돼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안수를 할 때 디모데에게 은사가 임했던 모양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를 쓴 게 67년 가을에서 68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에베소교회에 닥치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도바울이, 그 옛날에 네가 목회자로 위임받을 때 받았던 은사들을 다시 불같이 일으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때의 은사들을 다시 불같이 일으킴으로써 대처해야 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AD 66, 67년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64년에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네로황제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화재사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걸 기점으로 계속해서 로마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에베소교회까지도 그 박해가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박해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의 기반이 다 깨어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오죽 했으면 지하로 들어가 땅굴을 파고 거기서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박해가 330년까지 계속됩니다, 260여년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로부터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외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디모데로서는 사도바울이 아버지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버지 같은 사도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그전에 갇힐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이미 로마에서 1차로 감옥생활을 했었고, 지금 2차로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건데 분위기가 달라요.
사도바울이 분명히 이번에는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에 박해가 임하는데 유대인들의 박해 같은 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제국의 힘으로 통치권이 받쳐주는 박해가 지금 교회로 향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같은 사도바울은 옥에 갇혀서 죽을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꾸 다른 교훈을 갖고 들어온 자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른 교훈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배교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깁니까? '디모데야,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자질을 가지고 대처하려면 두려움밖에 없다' 이 얘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은사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서 갖고 있는 선천적, 후천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천적인 자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창조주하나님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선천적인 소질이나 후천적인 습득,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연결되어서 계신 하늘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은사라는 겁니다.
창조주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자연인들 모두가 다 창조주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지금 이 상태로 대처하면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뭘 주시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뭘까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직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뭡니까?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상실이 아니고 상실감입니다.
상실이 일어나도 내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상실감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상실은 일어날 거예요,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부자 됨의 감각이 십자가복음을 통해서 죽어버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돈은 많이 들어와도 부자 됨의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부자 됨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하나님에 의한 기쁨으로 대치돼버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고난과 박해가 주어지면서 상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상실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썩는다는 게 뭐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러면 지금 디모데가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인간적 성품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할 때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상실이 일어날까봐,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잃어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육체에 연결돼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

릴까봐 두려워하는 거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잃어버릴까 체면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육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육체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같이 죽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시고 천국이 현실이라는 걸 마음에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사후에 대한 위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면 미국에 도착하는 것처럼 지금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면서 이 땅에서 육체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다 잃어지고 있는데도 상실감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에게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세월호에서 정말 마음 아프게 우리의 아들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분명히 진도 앞바다에 빠져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1년 뒤에 미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나 미국에 있어,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ㅇㅇ대학에 입학하게 됐어' 이런 전화가 온다고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13년 뒤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야곱은 부랑민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게 떠돌이에요, 집시같이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짐승에게 뜯겨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의 총리,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의 부모님이 천국을 가진 자라면 거기에 상실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때문에 난리인데, 온 국민의 공분이 선장과 선원들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선장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나 분통은 터지지만 그들을 아무리 잡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돼요, 해결이.
이미 죽었는데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어차피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까?
천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에게 연락이 온 것처럼 진도 앞바다에 빠진 아이가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서 살아있어 연락이 온 것처럼 천국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실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고.

천국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말로만 알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님을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연결돼서 잃어버릴 것 같아서 두려워지는 모든 것들, 사업 건강 돈 목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앞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예방주사 놓을 때 그 병균을 미리 넣어서 면역을 기르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승천해 계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들보다 더 강하게 현실로 부각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로마황제 네로가 어떤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뺏어가더라도 다 썩어질 육체에 근거된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잃어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늘과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꽉 찬 상태에서는 이 육체를 갖고 가는 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왜 주십니까? 이 은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은사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상황이 문제라면 은사는 해답입니다.
인간적인 자질로 대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안 벌려요, 왜 하나님이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을 주실까요?
돈이라는 것이 없어도 상관없는 능력을 배양시켜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돈 없는데도 기뻐요, 사업이 망했는데도 기뻐요.
왜 사업이 망하게 되는 일을 주십니까?

그래도 잃어버리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육체와 연결된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없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삶을 어렵게 어렵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까짓 돈 주시려면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요.
육체의 아버지는 돈 많으면 돈을 주시겠죠.
우리 하늘아버지는 조물주, 물질을 다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근데 안 주셔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아버지가 못 주는 사랑을 주시니까.
모든 물질적인 부요함이 다 사라져도 아무것도 상실한 게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거면 고난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고난을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기만 해야지.
이 육체에 연관된 상황에서의 고난들을 통해서 육체의 목숨까지 다 상실돼도 전혀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은사로서의 능력을 배양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일을 쉽게 안 풀어주셔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잘살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
왜 그래요?
은사를 주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본문대로 얘기하자면.
그 은사 중에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얘기해요.
사랑은 그렇게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하늘을 가진 자가, 인간적인 자질로만 보자면 두려움으로 대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몫을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내 앞가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하늘나라가 현실이 돼가지고 상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박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질 갖고는 안돼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갖는 것, 상실감을 뛰어넘는 은사.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뭡니까?
절제한다는 말을 헬라어의 뜻을 보면 두 단어가 합쳐있는 거예요.
save와 heart가 합쳐있습니다.
마음을 정신을 생각을 구제한다는 뜻이에요.
박해가 임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왕좌왕하고 교회가 웅성웅성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물살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근데 절제하는 마음은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가는 내 마음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십자가를 향해 갈 때만 빗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연관된 세상 삶에서 충격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 충격 속에서 우리 마음이 빠져들어 갑니다.
이때 마음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거기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충격적인 사건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충격적인 사건은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새삼스럽게 이 문제에 끼어들어 가겠나?'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늘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현실로 느끼고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꽉 천국이 찰 때 아~무런 상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순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천국에 가니까.
천국을 아는 자는 죽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자에게는 죽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이고.
죽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박해가 임하고, 내가 갇혀서 나도 순교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계속 위협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한데, 인간적인 자질로 대처하면 두려움밖에 더 갖겠냐?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썩지 않을 세상에 대해서 가르쳐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현실로 느끼게 해주시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것이며, 그 역사를 따라 하늘이 주어지면 전혀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돼서, 다들 자기

것 챙기느라 아우성인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언제나 마음을 십자가로 돌이켜서 네 마음을 구원함으로써,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간적인 자질을 갖고 대처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천국을 갖게 해주실 것이고 상실감 제로의 상태에서 은사적 시간들로만 삶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선천적인 자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후천적으로 습득한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 주어지는 은사로써만 모든 하루의 상황들을 대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